

햇갈리는 도로교통법... 피해자는 억울해

아파트·건물 주차장·학교내 등 교통사고 빈발 '안전 사각' 법적 도로 인정 안돼 피해자가 과실 떠안고 합의하기 일췌 전남대 교내 교통사고 발생 전국 두번째 등 대책 마련 시급

최근 중앙로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 인근의 한 주차장을 찾은 A(50)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출고한 지 6개월도 안 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주차장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던 중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B씨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A씨는 새차의 앞범퍼가 손상돼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주차장 내 도로에 그어진 노란 중앙선을 상대의 차량이 침범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100%일 것이라는 생각에 위안을 삼았다.

하지만, A씨는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자동차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들어야 했다.

보험회사 직원은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이나 아파트, 학교 내 도로 등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과실 비율이 50대 50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자신의 과실 일부(40%)를 인정하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아파트 단지나 건물 주차장, 대학교내 등 경비원이나 차량 차단기가 설치된 지역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의 구역으로 구분돼 교통사고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일반도로처럼 중앙선 등 차선이 그어져 있지만,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도로 외 구역인 탓에 효력이 없어 경찰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통 경찰 등 교통전문가들은 도로 외 구역 가운데 차량통행이 잦고 사고발생이 빈번한 구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확대 적용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도로 외 구역에서 뺑소니, 음주운전,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 사고를 제외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건널목 등의 사고를 내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등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과실비율도 보험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아파트 단지나

건물 주차장, 대학교처럼 경비원이나 차량 차단기가 설치돼 외부 차량을 통제할 경우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로 외 구역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를 말한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도 경찰과 보험사 등에 교통사고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통계를 내고 있지만, 도로 외 구역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집계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도로 외 구역에 속하는 대학교 내에 설치된 도로의 경우 각종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 2015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국립대 및 국립대법인 교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교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건수가 총 483건이었다.

전남대학교는 이 기간 동안 108건의 교통사고 사고가 발생해 서울대학교(318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교통사고가 났다.

조선대학교의 경우 택시부터 시내버스, 오토바이 등 하루 평균 5000여대 이상의 차량이 오가고 있다. 요즘은 방학기간인데도 대학교 내의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교내를 찾는 학생과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선대 관계자는 "한 달 평균 2건 정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만 당사자들끼리 금방 합의를 하고 끝나기 때문에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자동차보험회사 관계자는 "도로 외 구역에서 자신의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의 얘기를 통해 담당자끼리 상호 협의에 따라 과실비율을 결정한다"면서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해도 사고경위 등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운전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소방시설 점검 22일 오후 광주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직원들이 동구 소재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재 참사' 장흥 세모녀 돕자

장흥군·지역사회 성금 모금 등 유족 지원 나서

장흥군이 서울장여관 방화사건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박모(여·34)씨와 두 딸(14·11세) 등 장흥 세모녀(광주일보 1월 22일자 6면)의 유족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22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남편 이모(40)씨 등 유족에게 6개월간 생계비, 연료비 등 긴급복지지원비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지역 공무원들도 성금 200만원을 모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모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박씨의 시부모가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설 예정이다. 숨진 박씨는 남편과 함께 어려운 형편 속에서 8대 시부모를 부양하며 살았었다.

장흥군 관계자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직업이 있고 일정 정도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과 지역사회에서 적극 나서 생활비나 장례 등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자동차 번호판 등록 대행업체 광주시와 협의 끝에 폐업 철회

수수료 조정하기로

광주시 자동차번호판 등록대행업체들이 광주시와 협의 끝에 폐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2018년 1월 16일자 6면>

광주시와 대행업체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서 시민들이 번호판을 달지 못해 차량운행할 수 없는 상황은 면하게 됐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폐업 신고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제작) 대행업체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대행업체 3곳은 저가 입찰에 따른 낮은 수수료와 운영비·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가 지난 12일 폐업 신고를 했다.

번호판 제작 수수료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2012년 이전에는 대형 1만2100원,

중형 1만1000원, 소형 3500원에서 현재는 대형 7700원, 중형 7100원, 소형 3000원까지 떨어졌다. 이들은 3~5명에 달하는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매달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외부기관에서 광주시의 번호판 제작업자를 분석한 결과, 중형 기준 1만3300원이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광주시 자동차번호판 등록대행업체 관계자는 "중소업체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한 광주시의 협조로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제작업체가 폐업 신고하자 지난 19일 대행업체 선정에 위한 긴급 입찰 공고를 냈다가 같은 날 취소했다. 시는 이날 중으로 업체들과 번호판 제작 가격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음주운전 단속 직전 '소주 병나발' 30대 무죄 이유는?

법원 "도덕적 비난 불구 범죄 요건 부족"

정주에 사는 A(39)씨는 지난해 4월 1일 새벽 4시30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20m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급히 차를 세웠다. 그는 곧바로 바로 옆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병째 들이쳤다.

경찰관 1명이 뒤쫓아와 말렸지만, A씨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끝내 소주 10여 병 정도를 마셨다.

10여 분 뒤 축적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2%였다.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행위를 방해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정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이 부장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이라며 "증거인멸 행위에 가까운 행위인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운전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기관 조사도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박진표기자 lucky@연남뉴스

폭설 틈타 화물차 연쇄 절도...훤친 트럭으로 고철 주워 팔아



○...폭설로 인적이 드문 시간을 틈타 화물차량을 연이어 훤친 일당이 경찰서행.

○...22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이모(31)씨 등 2명은 전남 서해안 일대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지난 10일 새벽 1시 30분께 무안군 일로읍 한 농장 앞에 세워진 1t급 화물트럭 1대를 훤치는 등 지난 17일까지 트럭 4대를 훤쳤다는 것.

○...이들은 훤친 차량을 고철 판매에

이용한 뒤 버리고 다른 차량을 또 훤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는데, 경찰 관계자는 "범행 대상을 모색하는 데 이용한 승용차의 번호판을 눈으로 기리는 수법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면서 "훤친 트럭으로는 대불산단 등에서 버려진 지난 10일 새벽 하루 20만~3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현재 고철 절도 범행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안=임동현기자 idh@kwangju.co.kr

<h2>평택시 토지분양 (오픈)</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 - 120만평 ▶ LG전자 - 110만평 ▶ 송탄역/진위역 5분 ▶ 미군기지 ▶ 평택 항 ▶ 고덕신도시 520만평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기타 평택 투자물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택시 신장동 (77평) (고덕신도시 5분, 송탄역 5분) 매가 4억 2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3평) 매가 6억 3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4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5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공장부지) (1,380평) 매가 8억2천 (서해안고속도로 5분) </div> <p>010-6670-9800 010-7384-7800</p>	<h2>영광주택 매매</h2> <h3>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h3> <p>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p> <p>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p> <p>직거래 010-6670-9800</p>	<h2>경매교육</h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론 실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 2) 실전 투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 3) 경매 평생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할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h3>경매물건 추천</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구 화정동 대주아파트(48평) 감정 2억 → 최저 1억4천 2 광산구 수완동 우미린 (33평) 감정 3억 → 최저 2억1천 3 서구 생촌동 광명하이츠 (상가) 감정 5천3백 → 최저 2천9백 <p>[사무직 (여)경력 구함, 경매 부동산 관심자 환영]</p> <p>010-6670-9800</p>	<h2>법률 경매 (주)대신경매</h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구 내방동 (건물) 토지:80평 건물:114평 감정:3억6천 → 최저:3억6천 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휴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비당) 감정가 1억4천4백 → 최저가 1억4천4백 3) 남구 양림동 (주택) 감정:2억6천 7백 → 최저:1억8천7백 4) 나주 성북동 (근린주택) 감정 32억 6천 → 최저 18억 2천 5) 광산구 수완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6억7천 6) 동구 산수동 (상가주택)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3억5천 7) 전북 군산시 평화동 (근린상가) 감정:12억1천 → 최저:4억1천 8) 화순군 남면 사평리 (주유소) 감정가 5억 → 최저가 3억8천 9) 화순 도곡면 천암리 (무인텔) 감정:37억4천 → 최저:20억 10)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감정가 6억5천 → 최저:2억3천 11) 북구 신안동 (주유소) 토지:232평 건물:114평 감정:14억5천 → 최저:14억5천 <h3>A.P.T·주택·공장·토지 (기타)</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구 진월동 한신 아파트 (31평) 감정 2억1천2백 → 최저 1억4천8백 2 서구 풍암동 금호타운 감정 1억9천 → 최저 1억 3천 3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36평) 감정 2억9천 → 최저2억 4 서구 유촌동 벚들주공 아파트 (24평) 감정 2억 → 최저 1억 4천 5 북구 운암산코아루렉시안 (34평) 감정 2억5천 → 최저 1억 7천 6 상무지구 갤러리 아파트 (75평) 감정 5억8백 → 최저 3억6천 7 광산구 수완동 대방노블랜드아파트(56평) 감정 4억5천8백 → 최저 4억5천8백 8 서구 마북동 (주택) 감정 1억3천 → 최저 9천1백 9 북구 양산동 (공장) 감정 39억 → 최저 17억6천 10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대지) 감정 7백 → 최저 5백 11 전남 목포시 용담동 (숙박시설) 감정 8억3천 → 최저 4억6천 12 전남 영암군 삼호읍 (공장) 감정 14억9천 → 최저 6억6천 <p>010-6670-9800 010-7384-7800</p>
---	---	--	--